

세계 신재생에너지 동향

1990년 이후 전 세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의 시장 점유율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. 2014년 기준 전세계 에너지 공급에서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는 세계 전략생산의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. IEA의 Key Renewables Trends: Development of Renewables and Waste in the World(2016.7.28.)를 요약한결과이다

1. 세계 총 1차 에너지 공급 중 신재생에너지 비중

- 2014년 전 세계의 총1차 에너지 공급은 13,700백만톤이었으며, 이중 13.8%(1,894백만톤)이 신재생에너지로부터 생산되었다.

2. 세계 신재생에너지의 구성비

- 신재생에너지 내에서는 개발도상국에서의 비상업적 사용(거주용 난방과 조리)이 많은 고체 바이오연료와 목탄이 66.2%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.

3. 액체 신재생에너지 공급 증가율

- 1990년 이후 신재생에너지 공급은 전 세계 총1차 에너지공급의 연평균 증가율인 1.9%와 조금 높은 연평균 2.2%의 증가추세를 시현하였다.
- 태양광발전과 풍력발전은 1990년에 매우 낮은 수준에서 연평균 각각 46.2%, 24.3%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.

4. 고체 바이오 연료와 수력의 비중

- 비 OECD국가들은 고체 바이오연료 생산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으나, 1990년 이후 증가율은 OECD 국가와 비 OECD국가들은 엇비슷한 수준이다.

5. 권역별 신재생에너지 공급규모

- OECD국가들은 총 에너지 공급량 대비 신재생에너지 공급량의 비중이 9.4%이며, 비OECD국가들 특히 아프리카의 경우 총 에너지 공급량 대비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49.6%로 높은 수준이다.

6. 신재생에너지 부문별 소비

- 전 세계적으로 주거, 상업 및 공공부문에서 48.5%로 소비, 이 부문 소비비중이 높은 것은 개발도상국 고체 바이오 연료의 광범위한 소비에 기인한다.

7. 전력생산에서의 신재생에너지 비중

- 신재생에너지는 2014년 전 세계 전략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2.3%로서 에너지원중에서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.

* 원문 : <https://www.iea.org/publications/freepublications/publication/KeyRenewablesTrends.pdf>

